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과 영화의 활용에 관한 연구

조희문^{1*}

The study about the ruling policy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nd its use of films for the political propagand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910-1945)

Hee-Moon Cho^{1*}

요약 일본은 1910년, 한국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력을 독점한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일본의 한국지배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조선총독부 또한 그때까지 존속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한국통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이었으며 한국인의 반일, 항일 행위를 무마하고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갔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일본과 한국은 같은 뿌리에서 탄생한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의식화하여 '內鮮一體'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본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갔는데,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억압적인 통제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1919년 3월 1일을 기해 대대적으로 일어난 항일 민족운동에 의해 전면적인 전환을 하기에 이른다. 이후에 취임한 3대 총독 사이토(齋藤實)는 보다 우호적인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회유하고자 했다. 정책의 변화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로 구체화 되었는데 민영 언론매체의 설립 허용, 시찰단 구성, 박람회 개최 같은 일들이 그것이다. 일간신문의 경우 이전에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Seoul Press 등 총독부 기관지만 발행되었으나 이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한국어 신문이 허용되었으며 잡지들도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한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과 한국시찰단을 구성하여 상호방문하는 사업을 펴기도 했고, 박람회를 개최해 일본의 우수한 문물을 한국인들에게 과시하려는 시도도 나왔다. 이같은 조치의 기저는 '周知와 宣傳'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영화였다. 조선총독부가 활동사진관을 설치하고 홍보, 선전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영화의 선전기능과 효과를 심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만주), 미국과 차례로 전쟁을 시작한 1937년 이후에는 민간의 영화제작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선전영화 제작을 위한 영화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종을 받는 한개 영화사만이 존재해 선전영화만을 제작했다.

Abstract Japan started to colonize Korea in 1910. It's when it forced and made Chosun sign on the Treaty of Protectorate.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was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 governing over the legislature, the judicature and the administration as a whole. Japan had ruled over Korea until 1945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lasted by then.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faithfully practiced Japan's colonial policy over Korea. Furthermore, it stopped many Koreans from an anti-Japanese movement and tried to make Koreans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Japan. For this, Japan advertised the policy called Nae-sun-il-che which meant Korea and Japan were a community together from the same root. Ultimately, it targeted on absorbing Korea within their territory. With this goal, Japan kept on practicing the policy to acculturize and brainwash Koreans, totally depending on force and pressure from 1910 to 1919. However, this policy had changed by the overall anti-Japanese movement happening on March 1st, 1919. Saito, the third governor-general who was appointed later on, made an effort to win over the favor of Koreans in a less forceful way of the cultural politics. The change of policy had been specified in diverse actions such as permitting civil mass-media bodies, forming the observation groups and opening conferences. In the case of daily newspapers, Japan had permitted only the ones by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such as Maeil-shinbo, Kyunsung-ilbo, and Seoul Press before, but then other civil newspapers in Korean stated to be released. Along this, Japan formed both Korean and Japanese observation groups to promote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showed off Japan's goods in conferences. These actions were aimed for practicing and advertising the political propaganda in a more effective way. In the process, it was a film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Actually,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put special efforts into producing and distributing of the propaganda films by implementing a film department. It's because Japan totally recognized and understood the impact of films. Therefore, Japan distinctively established a film agency for the production of propaganda movies while it banned the civil film production after 1937 when Japan started the war against China and USA in a row. So, only one film agency, rul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produced movies from 1942 to 1945.

Key words : colonial ruling, political propaganda, banning of civil film production

1. 서론

일본은 1910년 한국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다. 이미

1905년부터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일본은 1910년에는 모든 권한을 가진 조선총독부를 새로 설치하고 실질적인 통치기구로 기능했다. 1945년까지 계속된 조선 통치기간 동안 조선총독부는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장악한 채 일본의 한국통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이었으며 한

¹상명대학교 영상학부 영화전공

*교신저자: 조희문(hmcho@smu.ac.kr)

국민의 반일, 항일 행위를 무마하고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갔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일본과 한국은 같은 뿌리에서 탄생한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의식화하여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 근거한 '內鮮一體'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한국과 일본은 천황을 최고 정점으로 하는 동일 국가이며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같은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동화시키는 것이었다.[1]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본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갔는데,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억압적인 통제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1919년 3월 1일을 기해 대대적으로 일어난 항일 민중봉기를 계기로 전면적인 전환을 하기에 이른다. 이후에 취임한 3대 총독 사이토(齋藤實)는 보다 우호적인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회유하고자 했다.[2]

이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사이토 총독은 시정강령(施政綱領)으로서 치안유지, 민의창달, 행정쇄신, 국민생활안정, 문화 및 복리증진 등 다섯 가지 사항을 내세웠다. 이른바 문화정치로의 전환이었다.

정책의 변화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로 구체화 되었는데 민영 언론매체의 설립 허용, 시찰단 구성, 박람회 개최 같은 일들이 그것이다. 일간신문의 경우 이전에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Seoul Press 등 총독부 기관지만 발행되었으나 이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한국어 신문이 허용되었으며 잡지들도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한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과 한국시찰단을 구성하여 상호 방문하는 사업을 펴기도 했고, 박람회를 개최해 일본의 우수한 문물을 한국인들에게 과시하려는 시도도 나왔다. 이 같은 조치의 기저는 '周知와 宣傳' 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영화였다. 조선총독부가 활동사진반을 설치하고 홍보, 선전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영화의 선전 기능과 효과를 심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했던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영화를 활용했는가에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총독부 설치 이전의 영화 활용

서구문화가 유입되던 1900대를 전후한 무렵은 국제

적으로 세력을 넓혀나가려던 열강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따라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았고 한국 또한 이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직, 간접으로 영향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내외의 정세를 읽고 있던 당시 지식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하며” (養其祖國之精神)하고 “발달한 문명을 배워야 한다” (呼喚文明之學術)고 역설함으로써 국권의 회복은 물론 지속적인 애국 계몽으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했다.[3] 즉 국권회복을 위한 자강(自強)을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의 실천적 방법으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 할수록 일본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통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한국내의 상황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한국에서의 반일투쟁과 일본 내에서의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를 이용하고자 했다. 그는 이미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1895년 이후 대만에 대한 식민지 통치가 시작된 이후 일본관련 영화를 상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4]

이같은 경험을 전제로 이토는 도쿄(東京)의 요시자와쇼탕(吉澤商店)과 교토(京都)의 요코다쇼카이(橫田商會) 같은 영화사들과 접촉하여 한국사정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다. 요코다쇼카이는 1908년 4월에 촬영기사를 서울에 파견해 촬영을 시작하는 한편 한국 황제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일도 추진했다.

〈寫眞御覽〉日本 京都 橫田商會의 활동사진 技師가 渡韓한 故로 어제 皇上陛下께서 그 사진을 御覽하셨는데 太皇帝陛下와 嚴貴妃 전하께도 어람하신다더라 [5]

요코다쇼카이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영친왕의 동정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사정을 촬영해 일본에서 상영하는 일에도 주도적인 활동을 보였다. 요시자와쇼탕과 요코다쇼카이가 촬영한 한국 관련 영화들은 오사카(大阪)의 빈텐자(弁天座), 도쿄의 긴키칸(錦輝館) 등에서 상영되었는데, 〈한국풍속〉 〈통감부 원유회〉(統監府園遊會) 〈한국일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토가 더욱 관심을 가진 일은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의 황태자 영친왕의 동정을 영화로 만들어 한국에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일이었다. 일본의 한국 침탈정책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한국의 어

린 황태자를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한 유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본에 인질처럼 데려갔는데, 외형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황태자를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국의 황태자를 인질로 억류하고 있다는 비난을 해명하며, 일본의 선진문물을 선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活動薈眞〉 덕수궁에서 내일 황태자전하의 동정을 수록한 활동사진회를 돈덕전(惇德殿)에서 열 것이라는데 황족부인과 각 大臣의 부인을 초대하여 관람케 하신다더라[6]

영화를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토 히로부미의 계획은 1909년, 그가 만주의 하얼빈(哈爾濱) 역에서 독립운동가 안중근의사에게 저격당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상영된 영화들은 대부분 일본에 있던 영친왕의 동정에 관한 것들이었지만 이듬해인 1909년에 이르러서는 고종황제가 서울시내의 민정을 시찰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나 이토의 생존시 동정을 수록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는데 영화상영에는 고종황제나 황족, 정부의 고급관리들이 주로 참석했으며 때로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각국의 외교관 특히 그 중에서도 통감부 관리들이 빈번하게 초대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7]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행사로 영화를 상영했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 황실은 물론 통감부 당국자들조차 영화를 중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국에 영화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를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국민계몽이나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적 이용과 상품판매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한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영리적 이용이 그것이다. 공리적 목적을 위해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는 사회운동이나 국민계몽운동을 하고자 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국민적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화를 사회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1905년 평양에서 대동학교란 교육기관을 설립한 김석운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본에서 영사기를 구입한 뒤 매일밤 학교구내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영화를 상영하면서 부터다. 그는 여기서 얻는 수입금을 학교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했는데, 영화상영의 명분을 “문명이 발달한 여러 나라에서도 영화를 이용해 국민을 교육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영화

기계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이용하여 일반국민의 교육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 [8]으로 밝히고 있다. 학교설립이나 이를 통한 교육의 시행은 당시의 사회여건에 비추어볼 때 서구문화의 수용에서 가장 명분 있고 의식 있는 행동이었다. 당시 한국내의 정치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던 개화파 지식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강을 통한 국권회복이었으며 신식교육은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방법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운영비의 충당을 위해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은 영화의 대중적 인기가 그만큼 높았다는 1차적인 사실과 함께 이를 교육적 목표에 이용하더라도 결코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영화가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데서도 드러난다. 정부 기관이었던 학부(學部)에서는 황실에서 관람하던 영화를 장안사(長安社)에서 상영하면서 서울시내 각 학교 중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도록 조치한 것은[9] 당시의 지식인이나 한국정부 내의 관리들이 영화를 교육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애국부인회, 대한실업장려회(大韓實業獎勵會), 자혜부인회(慈惠婦人會) 등 한국인 단체는 물론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주축을 이룬 일본 애국부인회, 일본 기독교청년회 등의 단체들도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 단체들이 영화를 상영한 것은 고아원 건립비를 모금하는 등의 자선활동을 비롯 교육이나 위생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계몽적 활동 또는 고종황제나 영친왕 등 황실인사의 동정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애국사상을 높이기 위한 애국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였다.

그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영친왕의 동정을 수록한 영화를 상영하고 이를 통해 황실의 존엄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애국부인회는 고종황제가 하사한 영화를 관인구락부(官人俱樂部)에서 각계 유지들을 상대로 상영했다.[10]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영친왕의 동정을 수록한 이 영화의 상영회에는 좌석이 모자라 입장을 사절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관람을 하는 도중 영친왕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만세를 부르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가득할 만큼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11] 당시의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이 같은 내용에 비추어 영화 상영을 준비한 측이나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 모두 구경거리로서의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영친왕이 일본에 있

는 동안의 동정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알현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의 여건상 비록 화면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영친왕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영화의 정보 전달기능과 함께 황실의 동정을 구체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실업장려회나 군산의 일본애국부인회가 영화를 상영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12] 영화를 비롯한 모든 예술을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평가하고자 했던 당시의 예술관으로 볼 때 영화는 다른 어느 장르보다 실용적이며 정확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같은 점이 사회적 활동의 수단으로 채택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애국부인회는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경성호텔에서 한국과 일본 관리들을 초대해 생전의 모습을 촬영한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으며[13]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대를 위문하기 위해[14] 영화를 상영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밖에도 일본기독교청년회나 용산철도청년회, 일본인적십자사 등에서도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들의 상영 역시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들이다.[15]

3.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活動寫眞班)의 영화제작과 상영

1920년 4월, 조선총독부는 관방문서과(官房文書課)에 영화의 제작과 보급 등을 담당하는 활동사진반을 설치했다. 설치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조선의 사정을 내지(內地-일본)에 또는 내지의 사정을 조선에 소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대정 9년(1919년) 4월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에 활동사진반을 설치하고 조선의 최근 모습을 필름으로 촬영하여 내외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조선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며, 일본 내지의 풍물도 촬영하여 조선에 소개함으로써 모국에 대하여 친근한 인상을 갖도록 하는 일에 노력하려는 것이다.[16]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이미 전부터 나왔다.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민도는 낮고, 영화보급은 내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민도가 낮을수록 영화의 감화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종래 조선에서 상영된 영화는 6할 이

상이 외국영화이며 내지산(內地產)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 같은 경향은 내지산 영화에 대한 인식부족도 원인이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른데 따라 민족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원인이다. 영화의 영향력이 실로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같은 경향을 방지하는 것은 절대로 안될 일이다. 그러한 폐풍을 타파하고 영화에 의한 좋은 영향을 얻기 위해서는 우량한 영화를 장려해 진실로 조선민족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해야만 조선통치의 철저를 기할 수 있다. 또 내지 영화산업을 장려해 일본 민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에도 노력해야 하는 일도 내선융화를 촉진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조선에서 영화산업의 발흥을 촉진함으로써 조선통치의 큰 정신 위에 조선민족 독자의 우량한 영화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17]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은 영화를 한국통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인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의 구체적 결과 중의 하나였다. 활동사진반은 먼저 1919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번진 만세 운동 이후의 사정을 수록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조선사정>(朝鮮事情) <조선여행>(朝鮮旅行) 등을 통해 한국의 풍물을 수록했다.

1920년 봄에 부산에서부터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풍물을 촬영한 5권짜리 영화 <조선사정>은 일본의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도쿄(東京), 후쿠이(福井) 등지를 순회하며 상영했으며 정치인, 지식인, 일반 관객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이 영화는 조선총독부가 순회상영을 마친 후에도 동양협회(東洋協會)라는 민간회사가 필름을 구입해 나가노(長野), 야마가타(山形), 와카야마(和歌山), 효고(兵庫), 사가(佐賀), 오사카, 교토, 니카타(新潟) 등지에서 계속 상영했다. 또 조선총독부는 이 영화의 필름을 미국에도 보내 뉴욕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상영하기도 했다.

활동사진반이 1923년에 제작한 <조선여행>은 부관 연락선(釜關連絡船)이 부산항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부터 부산, 대구, 경주, 경성, 인천, 개성, 평양, 신의주, 의주 지역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풍물과 교통, 수산, 임업, 광업 등의 각종 산업 현황, 교육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 역시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상영되었는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했다 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의 산야는 황폐해 있으며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보잘 것 없는 지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영화에 의해 조선의 산업, 교육, 교

통 그 밖의 문화시설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을 알았으며 내선인 혼연일체가 되어 산업개발에 종사하고 있고, 주요도시는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농업, 수산이 유망하며 내지 연장주의의 교육이 훌륭하게 보급되고 있는 것에 감탄했다.[18]

특히 <조선여행>은 한국내의 제반 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등의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도 했는데, 여행자 겸 해설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이 같은 형식이 독특한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내 관람객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25년에 제작한 <조선의 여행1-내지에서부터>(朝鮮の旅1-内地より, 7卷 1,212m)는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부관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상륙한 뒤 대구, 경주를 거쳐 경성, 금강산, 신의주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18] 같은 해 11월부터 26년 4월까지 일본 각지에서 상영되며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이 영화의 필름을 선만안내소(鮮滿案內所)[19]에 비치하여 일본인의 한국여행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활동사진반은 일본인 관객을 위주로 만들었던 조선 소개 영화가 예상외의 인기를 얻게 되자 만주와 간도 지방의 풍물을 소개하는 여행까지로 그 범위를 넓혀나갔다. <조선의 여행-만주로부터>(朝鮮の旅1-滿洲より, 5권, 1,400m)는 봉천을 출발한 두 사람이 신의주를 거쳐 평양, 경성을 지나 목포에 이르러 부모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조선의 여행1-간도로부터>(朝鮮の旅1-間島より, 6권, 1,665m)는 간도 용정 마을에서 출발한 한국인 형제가 회령을 거쳐 금강산, 경성, 대구, 경주를 둘러본 뒤 부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활동사진반은 만주와 간도 지역의 현황을 소개하는 영화도 만들었는데, <간도사정>(1권, 1,110m)은 겨울철 간도 풍경을 촬영한 것으로, 얼음 위에서 목재를 운반하는 모습이나 콩(白豆)을 수입하기 위해 중국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으며 <만주에 살다>(滿洲に住して, 2권, 358m)는 만주에 정착한 한국인들의 영농상황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한 영화는 한국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상영하였으며, 조선총독부가 주최하는 시정 홍보를 위한 대중 집회나 강연회 등에도 동원되었다. 영화를 이용한 홍보 및 선전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조선총독부 내의 다른 부서들에서도 영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체신국(遞信局)에서는 별도의 활동사진반을 설치하고 영화제작에 착수했으며 철도국(鐵道局), 외사과(外事課) 등은 영사반을 설치하여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영화를 이용하고자 했다. 체신국

에서는 저축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선전영화를 제작했는데,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월하의 맹세>(1923)는 그중의 대표적인 경우에 든다.[20] 체신국은 영화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도서과 활동사진반이나 민간 영화 제작자에게 의뢰해 필용한 영화를 조달했다. 특히 외사과는 한반도 영토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화상영회를 자주 열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진 곳이 만주지역이었다. 1933년 당시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만주지역 거주 한국인수는 671,535명에[21] 이르고 있으며 그중 40만 명 정도가 간도 지역에 밀집해 있었다.

조선총독부 외사과와 활동사진반에 의한 재만(在滿) 한국인 대상의 순회영사는 1921년에 간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이후 매년 1회씩 남, 북만주에서 강연과 함께 순회영사를 개최하였다. 1920년 4월에 활동사진반이 설치된 이후 1936년까지 제작한 편수는 모두 241편에 이르며 같은 기간에 4,700여회에 이르는 상영회를 열었다.[22]

영화를 홍보와 선전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구체적 사례다. 조선총독부의 이 같은 정책은 조선영화령의 공포 이후 더욱 강화된다. 민간 영화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던 홍보, 선전 활동이, 민간 부문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오직 조선총독부가 필요로 하는 영화만 제작하는 적극적인 통제와 억압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표-1.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 제작 영화의 종류와 편수>

종 류	편 수	비 고
總紀	8	
황실관계	25	
교육,신사,종교	14	
시사	39	
사회사업	31	
자력갱생	9	
산업	45	
경찰	4	
체육	13	
지리	11	
풍속	13	
名勝, 舊蹟	14	
日支事變關係	7	
其の他	8	
	계 241	

표-2.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의 필름 대부와 상영회수>

年 度	貸付卷數	貸付延日數	活動寫眞映寫回數 (한국 및 일본)
1919			49
1920	8	2,048	66
1921	66	10,015	93
1922	168	7,339	132
1923	345	7,524	123
1924	645	24,704	192
1925	755	36,029	193
1926	653	67,427	203
1927	1,032	25,135	505
1928	856	34,793	465
1929	679	30,650	510
1930	725	18,478	360
1931	699	20,430	710
1932	710	23,393	214
1933	708	21,477	310
1934	836	21,296	330
1935	653	22,071	336
1936	822	29,702	392
계	9,760	402,511	4,733

4. 조선영화령(朝鮮映畵令)과 영화사 통합

조선영화령의 공포(公布)는 한국영화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단순한 통계를 넘어 영화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937년 중국과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전시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국가 총동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1941년에는 하와이를 침공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사회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일본정부는 전쟁수행을 위한 각종 군수물자 생산에 모든 힘을 기울였고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는 물론 소설이나 연극, 영화와 같은 문화, 예술분야의 매체들도 일본당국의 정책선전과 여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흡수되었다. “국민오락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는 교화, 선전, 보도 등의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국민예술로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영화가 맡아야 할 국가적 임무는 점점 증대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23]는 인식은 일본 영화법 제정의 중요한 이유였다. 이같은 인식은 영화법 제정 이전부터 나왔으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에 대하여 위정자들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영화제작업자나 흥행자에게 일임하고 경찰 단속으로 치안 풍속을 해치는 사례

를 배제하는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하는 것이며 문화적 가치를 모르는 것이다. 오늘날 영화는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환심을 사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따라서 치안풍속을 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전성을 해치거나 국가의 지도정신을 해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산영화의 경우는 우리의 국민성에 반(反)하거나 일본적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교육가, 사회사업가 등이 수년전 미국영화들이 국민교육을 파괴하고 저급, 야비한 풍습이 퍼지게 함으로서 옛부터 전해오던 신사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탄식한 일이 있다. 외국산영화의 범람은 조선에서도 조선의 풍습, 민족정신 등이 부지불식 간에 훼손되어 제국의 통치가 조선민족 사이에 철저히 되지 않을 수 있다.[24]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한 규제제도로 이어졌다. 영화의 제작, 수입 등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민간 영화사를 통합하고 조선총독부가 실질적 운영을 주도하는 새로운 영화사 설립 작업도 추진되었다. 활동사진 영화취체규칙(1935년)이 시행된 이후에는 극장의 영화상영 제한, 강제상영, 수출 및 이출(移出)의 허가, 우량영화의 보호와 장려 등의 조치가 이어졌으며 특히 외국영화의 수입제한 조치가 강화되었다. 1935년 연말까지는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이 전체의 4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외국영화의 수입제한은 주로 미국영화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동맹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 영화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포된 조선영화령은 소극적인 규제의 수준을 벗어나 영화계의 전면적인 개편 단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영화제작의 국유화 작업이었다.

일본에서 제정한 영화법은 조선총독부 제령(制令) 제1호로 조선영화령이란 명칭으로 공포되었으며 영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본문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일본 영화법은 영화의 제작, 배급 및 흥행 등 각 부문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그 법을 그대로 한국에도 적용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보다 앞서 이미 흥행 및 흥행장취체규칙(1922년)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1926년)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1934년)을 발표, 시행해왔다. 조선영화령은 그같은 법령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영화의 통제와 활용에 관

한 문제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영화의 수입과 제작, 배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여러 개로 분산되어있던 민간 영화 제작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과 영화인들을 하나의 단체에 편입시켜 조선총독부가 원하는 영화만 제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그 결과 1939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던 모든 영화인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조선영화인협회(朝鮮映畵人協會)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영화인들에게는 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화인들은 이 단체에 등록하고 조선총독부가 원하는 영화를 계속 만들든지 아니면 일체의 영화작업을 포기하고 영화계를 떠나든지 선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같은 조치에 이어 조선총독부는 영화사 통합작업을 벌여 1차적인 조치로 그 당시 활동 중이던 10개 영화사[25]를 회원사로 가입시킨 조선영화제작자협회(朝鮮映畵製作者協會)를 1940년에 결성하고 조선총독부가 필요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도록 하는 한편 1942년 9월 29일에 이르러서는 민간영화사를 모두 통합해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朝鮮映畵製作株式會社)라는 새로운 영화사를 설립했다.[26]

조선에 영화제작회사가 내지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특수사정 때문이다. 조선은 총독정치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내지와 비교할 때 예술,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다. 일반 민중의 지식수준도 내지와는 크게 다르고, 언어, 풍속, 종교 등도 많이 다르다. 내지 영화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조선의 인구 2,400만 명은 내지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며 대륙과 인접하고 있는 조선의 위치는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의 조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곳에서 문화향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화의 사명은 실로 중차대한 것이다. [27]

이로써 한국의 영화계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단 하나의 영화사만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영화계에 남아있던 영화인들은 이 회사가 만드는 영화작업에 참여하는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 일을 주도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업계의 영화사들이 자율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취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자유로운 영화제작이 완전히 금지되었으며 오직 일본의 정

치적 목적과 대중선전에 필요한 영화만이 제작됨으로써 한국영화는 전시동원 체제를 위한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편입되었다. 조선영화주식회사는 창립 이후 모두 14편의 영화를 제작했으며 각 영화는 모두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헌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3]참조] 식민지 국가가 겪어야했던 시련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1945년 8월까지 계속되었다.

표-3.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가 만든 영화>

제작년도	제목(원제)	감독	주연	비고
1942	나는 간다 (今ど我は行く)	박기채	최운봉 남승민 김 병	
	흙에 산다	안석영	김일해 남승민 서월영	
1943	우르러라 창공 (仰げ大空)	김영화	나 응 김일해 서월영	
	조선해협 (朝鮮海峽)	박기채	서월영 김신재 문예봉	
	젊은 모습 (若き姿)	豊田四郎	남홍일 복혜숙 서월영	
1944	거경전(巨鯨傳)	방한준	전택이 전 옥 김일해	
	병정님 (兵隊さん)	방한준	이금룡 전 옥 김일해	
	태양의 아이들 (太陽の子供達)	최인규	문예봉 최운봉 김신재	
	너와 나 (君と僕)	허 영	문예봉 김신재 이향란	
1945	사랑의 맹세 (愛の誓い)	최인규	문예봉 김신재 村田知榮子	
	신풍의 아들들 (神風の子供達)	최인규	김신재 독은기	
	혈과 한 (血と汗)	신경균	김신재 독은기	
	우리들의 전쟁 (我れらの戦争)	신경균	김일해 독은기	
	감격의 일기 (感激の日記)	신경균	최운봉 김소영 복혜숙	

5. 결론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 했던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의 영화는 극심한 통제와 억압 속에 감금당한 채 정치적 선전과 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최고 통치기구였던 조선총독부는 지속적이며 조직적으로 영화 통제와 활용을 시도했다.

통제와 활용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기 전인 통감부 시기(1905-1910),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이후부터 조선영화령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통제 시대, 조선영화령이 공포된 1940년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의 기간 동안 영화제작을 사실상 국유화하고 민간영화제작을 전면 금지하는 국책시대로 나눌 수 있다. 통감부 시기에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한국침탈에 대한 일본 군벌 정권의 야심은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이토는 영친왕을 일본에 유학 명분으로 억류시킨 뒤 영화를 이용한 여론 조성 작업에 적극 나섰다. 영화는 새로운 근대문물이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통제시대에는 영화의 제작과 유통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정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활동사진반을 조직해 필요한 영화를 제작했으며, 영화에 대한 검열과 통제 강화, 외국영화 수입의 점진적 제한을 통해 통치 이념을 대중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책시대에는 민간의 영화제작을 전면 금지하고 조선총독부의 조종과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조선영화제작 주식회사 단일 회사만 운영함으로써 영화를 오로지 전쟁수행을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했다. 일반영화사의 통폐합과 어용 국책영화사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설립은 정치적 선전 단계를 넘어 국가개조 작업을 시도한 극단적 사례에 해당한다.

통제와 억압이 강화 될수록 영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은 약화되었으며 산업적 기반을 갖추는 일도 요원했다. 자유를 잃어버린 시대의 영화는 억압적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참고문헌

[1]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pp.9-10, 1935

“합병의 실시와 함께 구한국의 국호는 폐지되고 조선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합병 이후 면적 14,312方里의 半島는 즉시 일본제국의 일부가 되고 1,300

만 인민은 모두 우리 천황폐하의 赤子が 됨으로서 예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는 서로 결합하여 一家를 형성하게 되었다.----두 나라가 일가를 형성하고 천황 밑에 같이 존재하기 위하여 조선통치의 근본이념은 첫째로 同化이어야 하며 둘째도 同化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2] 朝鮮總督府, 같은 책, p.9

“중대 총독의 임용은 무관으로 제한하였지만, 이 제도를 철폐하고,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로 대신하며 관리나 교원 등의 制服帶劍 제도를 폐지하며 총독정치의 기본을 文治主義로 하는 방침을 밝히고 문화적 개발에 전력하며 문화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반도통치의 근본방침은 추호의 변함과 차이도 없다. 즉 합병당시 천황이 언급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큰마음을 갖고 반도를 제국의 중요한 일부로 해야 한다.”

[3] 姜在彦, 韓國의 開化思想, 比峰出版社 p.247, 1981

[4] 田村志津枝, はじめに映畫があつた, 中央公論新社 pp.43-44, 2000.

[5] 皇城新聞 1908.4.15

[6] 大韓每日申報 1908.5.10

[7] 大韓每日申報 1909. 6.15, 大韓民報 1909. 6.27, 大韓每日申報 1910.2.2

[8] 皇城新聞 1905.8.30

[9] 大韓每日申報 1910.4.17, 韓民報 1910.4.17

[10] 皇城新聞 1908.6.18, 皇城新聞1908.6.24

[11] 皇城新聞 1908.6.26

[12] 大韓每日申報1908.7.8, 皇城新聞 1908.7.18

[13] 皇城新聞1909.12.16

[14] 大韓民報1910.3.12

[15] 皇城新聞 1908.4.14, 皇城新聞 1909.5.23, 皇城新聞 1909.12.15

[16] 朝鮮總督府キネマ 朝鮮總督府 . p.1, 1938

[17] <朝鮮>, 1923년 6월호, 朝鮮總督府

[1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キネマ p.51

[19] 韓國(朝鮮)과 滿洲 일대의 여행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여행안내소. 東京, 大阪, 下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20] 안종화, 韓國映畫側面秘史, p.64 참조, 춘추각, 1962

[21]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pp.963-964. 1935

[2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キネマ p.51

[23] 山田英吉, 映畫國策の前進, 厚生閣, p.6, 1940.

[24] 清水重夫, 朝鮮に於ける映畫國策に就て, 警察研究 第六卷 第五號 1935

- [25] 처음에는 朝鮮映畫株式會社(代表 崔南周), 高麗映畫協會(廣川創用), 明寶映畫合資會社(李炳逸) 漢陽映畫社(金甲起), 京城映畫製作所(梁村奇智城), 朝鮮九貴映畫社(후에 皇國映畫社로 변경, 降旗清三) 朝鮮藝興社(徐恒錫), 朝鮮文化映畫協會(津村勇), 京城發聲映畫製作所(高島金次) 등 9개사였으나 곧 朝鮮藝興社가 해산하고 東洋卜-キ映畫撮影所(國本武夫)와 16밀리 영화 전문의 鮮滿記錄映畫製作所(久保義雄)가 참여하여 10개사가 되었다.
- [26] 高島金次 朝鮮映畫統制史 朝鮮映畫文化研究所, p.8, 1943
- [27] “朝鮮映畫製作株式會社概況”, 映畫旬報 1943年 7月 11日號

조희문(Hee-Moon Cho)

[정회원]



- 1980년 2월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문학사)
- 1983년 2월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문학석사)
- 1992년 2월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영화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영상산업, 영화정책, 영화사